

‘나이롱 환자’ 꼭 잡아내는 ‘마디모’를 아시나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과다 보험 청구〉

운전자 요청엔 국과수가 과학적 분석 결과 알려줘

광주 5개 경찰서 울들어 127건 접수...이용자 급증

주부 최모(60)씨는 지난 9월15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마곡동 2순환도로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앞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깜빡뎐 순간 바로 앞 차를 살짝 들이 받은 것이다. 피해 차량은 육안으로 흠집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고는 가벼웠다. 그런데도 당시 차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이모씨·50)는 며칠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해왔다. 주부 최씨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마디모'를 접수한 뒤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데도 상대가 병원에 입원하고 '막가파식'으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20대 여성에 초보운전자라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눈 앞이 갑자기 캄캄해질 것이다. 다리에 힘도 쭉 풀리고, 맘 속에선 '이 정도는 아닌데, 저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을 건데...'라고 되뇌며 말이다.

상대가 '나이롱 환자'라는 것이 의심되거나 이를 밝혀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꼭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영하는 '마디모'가 그것.

? 마디모 (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도로에 남은 흔적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고 상황을 3D 영상으로 재연하는 '교통 상해사고 감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환자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판별할 수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디모는 교통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분석, 사고 상황을 3D 영상으로 재연하는 교통 상해사고 감정 프로그램이다.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 접수된 마디모 감정분석 의뢰건수는 지난해 13건에 그쳤으나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울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127건이 접수됐다.

마디모 감정은 운전자가 경찰에 요청하면 국과수가 분석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통상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

경찰은 특히 ▲주행중 낮은 속도로 스치듯 접촉한 사고 ▲사이드미러가 조금 파손된 사고 ▲교통사고가 난 후 수일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차량 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 ▲기타 상식선에서 경미한 대인사고라고 볼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사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에게 마디모 분석을 안내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마디모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뒤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타내려는 '나이롱 환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최근 1년 새 감정을 의뢰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가벼운 접촉사고



5월나무 '후계목' 심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쓰러져 고사 됐던 광주 동구 옛 전남 도청 앞 회화나무와 유전자기 동일한 후계목을 심는 행사가 30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내 회화나무 소공원에서 열렸다. 사진 앞부분 잎이 보이는 나무가 후계목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등교시간, 오전 8시 30분 이나 9시로 늦춰달라”

시교육청, 학생·학부모 등 설문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등교시간을 늦춰줄 것을 원했다. 학생들은 등교시간을 오전 9시, 학부모·교직원은 8시30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교시 수업시작 시간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오전 9시를 1순위로 꼽았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등교시간 조정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초·중·고교생 모두 오전 9시를 가장 선호했다. 다음으로는 8시30분이 많았다.

특히, 예상과는 달리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32.5%)들이 9시 등교를 더 원했다. 학부모는 초·중의 경우 8시30분, 고등학교는 9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직원은 초·중·고 모두 8시30분을 1순위로 선택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시간 보장 등을 위

해 등교시간을 다소 늦추는 것을 원했지만 교직원은 수업준비 등 학습 효율성을 우선 시해 등교시간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답한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 등교 선호시간을 묻는 질문이 10분 단위로 쪼개지는 바람에 응답 시간대가 분산돼 시교육청이 선호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정취교 교육감 취임후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초·중학교는 8시30분 전후, 고교 1·2학년은 8시, 3학년은 7시40분에 등교하고 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먼저 등교해 아침 자율학습을 하거나 EBS방송 시청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21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장단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등교시간 조정에 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윤일병 가해 이모 병장

군법원, 징역 45년 선고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소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징역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 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2 몰림 13:12
해질 17:40 달림 23:18

10월의 마지막 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다음달 2일까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mm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13/17	보성	비	12/16
목포	비	14/17	순천	비	12/16
여수	비	13/17	영광	비	13/17
나주	비	12/17	진도	비	13/18
완도	비	14/18	전주	비	13/18
구례	비	11/15	군산	비	12/17
강진	비	13/17	남원	비	12/18
해남	비	13/18	축산도	비	15/17
장성	비	12/17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1.0~2.5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06	19:55	00:06	12:14
여수	01:48	14:47	07:46	21:25

◇주간 날씨

11/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	☁	☁	☁	☁	☁	☁
15/20	14/17	8/14	5/17	6/18	8/19	8/19

◇생활지수

식중독	45
운동	20
빨래	20

의료계, PET검사 보험적용 기준 변경 반발

“보험 보장성 후퇴” 비난

암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PET)에 대한 급여 기준 변경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양전자 단층촬영 급여대상을 늘리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하고자 '양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으로 비뇨기계(신장·전립선·방광·고환) 암, 자궁내막암 등을 앓는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돼 1회 촬영당 비용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암 치료 완료 뒤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등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겉포장과 달리 실제는 암 환자에 대한 심각한 보장성 후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간암·간·대장항문·두경부종양·방사선종양·부인종양·외과·폐암·유방암·혈액학 등 10개 학회는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양전자 단층촬영은 작은 암을 찾고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암 치료 방법 선택에 중요하다”며 “고시 개정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한·제외된 암 환자가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준 총장 사퇴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임기 절반여를 남긴 이날 중순 갑작스레 사표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13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지스 트 이사회도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총장은 2012년 6월 취임해 임기를 1년 8개월가량 남겨 놓은 상태였다.

과기원 내부에서는 이날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만 사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 뒷말이 무성할 실정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노사가 2012년 연구활동비를 인상에 성과급 명목으로 임금을 더 주겠다고 별도로 합의, 같은해 임원 연구활동비를 월 6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4배 올린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23-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오시는 길

KT서광주지사 서문교회 서구청 신협 정운주·김석치과 (가림빌딩 3층) MBC

KT서광주지사 서문교회 서구청 신협 정운주·김석치과 (가림빌딩 3층) MBC

정운주·김석치과

문의처 062)365-7528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오후 7시
- 야간진료(화요일) | 오전 9시~오후 9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 주일, 공휴일 휴진

개원 일시

2014년 11월 1일(토) 12시~오후 4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4 (월산동, 가림빌딩 3층, 돌고개역 1번 출구)